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05호

2019. 9. 30.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mailto:nojo@hanyang.ac.kr)

## ERICA 40년 역사의 주역!

대한민국 해전사를 넘어 세계 해전사에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승리 명량해전. 명량해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서의 승전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영도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군을 따르며 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병사들, 거북선과 판옥선을 건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RICA 캠퍼스 개교 40주년

ERICA 40년의 역사는 역대 ERICA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경영진과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 위에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인원 감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ERICA가 각종 국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직원들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ERICA캠퍼스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학·연·산 협력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와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는 독보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대학의 한 주체로서 ERICA 발전 계획을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발전이라는 명분, 재정위기라는 핑계로 직원들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양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직원들의 인내와 체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대책 없고 무리한 겹직 남발과 주52시간 이상의 노동 강요는 불법인 동시에 노동력 착취이다.

오늘(9월 27일) ERICA 캠퍼스 개교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인 라이온스 홀에 들어서서는 순간 감개무량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자연사박물관이 이렇게 탈바꿈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40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꾸미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행사 중에도 연신 뛰어다니는 분들,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자 직접 도시락을 날라주신 분들, 어떤 선생님은 발이 통통 부어 구두를 벗고 스타킹 바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동료로서 VIP석에 앉아 밥을 먹기가 미안했습니다.

개교 40주년 기념식 행사를 위해 애쓰신 기획홍보처, 총무관리처를 비롯한 ERICA 모든 분들, 행사 실무를 담당했던 이기훈 과장님 그리고 새 총장님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몇 달간 고생하신 서울 각 부서 담당자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큰 행사를 직접 총괄하며 성공적인 행사로 이끈 양내원 부총장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과 함께 뛰고 소통하시면서 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아픈 곳을 보살펴 주는 부총장으로 기억되며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27일,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신남호 드림

. 끝.